

공 고

●문화재청공고 제2021-42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5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2. 30.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 총 5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양부일구 (仰釜日晷)	1점	국 유 (국립고궁박물관)
2	양부일구 (仰釜日晷)	1점	국 유 (국립경주박물관)
3	양부일구 (仰釜日晷)	1점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4	자치통감 권266~270 (資治通鑑 卷二百六十六~二百七十)	5권 1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기념관)
5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 (慶州 芬皇寺 金銅藥師如來立像)	1 구	대한불교조계종 분황사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예고】

□ 양부일구(仰釜日晷)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양부일구(仰釜日晷)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11.7cm, 지름 24.1cm, 무게: 4.5kg
- 재 질 : 황동 및 구리, 아연, 납 등 합금
- 형 식 : 네 개의 다리가 달린 가마솥 모양의 오목한 해시계
- 조성연대 : 1713년 이후 추정
- 사 유

‘양부일구(仰釜日晷)’는 양부일영(仰釜日影)으로도 쓰며, 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의미이다. 1434년(세종 16) 장영실(蔣英實), 이천(李戡), 이순지(李純之) 등이 왕명에 따라 처음 만들었으며, 그 해 10월 종묘 앞과 혜정교(惠政橋)에 각 1대씩 설치하였다. 그 후 조선 말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궁궐과 관공서에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양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양부일구의 경우, 북쪽방향(子)에 은상감으로 새긴 ‘북극고 37도 39분 15초(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라고 새긴 명문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 이후 처음 사용된 사실이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를 통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역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국내 현존하는 양부일구는 약 10점이 알려져 있으며, 비교조사를 통해 3개 소장처(국립고궁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에 보관된 3점에 대해 보물 지정 예고를 하게 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양부일구는 재질, 규격, 형태, 제작기법, 기능 등이 거의 유사해 동일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양부일구 1점은 2020년 미국에서 돌아온 환수문화재이다. 양부일구 시반에는 남북[午子] 방향으로 북극으로 향한 영침(影針)이 달려 있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세로 눈금인 시각선이 15분 간격으로, 계절을 알려주는 24절기의 가로 눈금으로 13개의 절기선이 은상감으로 새겨져 있다. 받침대는 네 개의 다리와 열십자[十]의 다리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개의 다리에는 각기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새겼으며 용 좌우에 구름 문양을 표현하였다. 열십자[十]의 다리받침 끝부분에는 거북이 머리를 새겼으며, 다리받침 형태는 가운데 부분이 위로 들려 단을 둔 모습이며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있다.

이 양부일구는 리벳을 사용한 접합기술과 은입사 상감기술로 만들어 졌으며, 반구형의 몸체 제작은 무쇠술 주조기법에서 보이는 주물사주조법이 사용되었다. 이렇듯이 이 양부일구는 정밀한 주조, 정교한 접합기술, 섬세한 은입사 기법, 다리의 용과 구름무늬, 다리받침의 거북

머리 장식 등 뛰어난 기술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로 숙련된 장인이 만든 예술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해 3개 소장처 양부일구는 ①제작기법에서 시반의 시각선과 절기선, 지평면의 절기글자와 24방향 글자에 표현된 은상감 기법과 영침, 받침대(다리와 다리 받침)에 적용된 리벳과 땀기법, 그리고 받침대에 시문된 용무늬, 구름장식, 거북머리 장식 등에서 뛰어난 조형미를 보이고 있어 숙련된 기술자가 제작한 최상급의 양부일구로 판단된다는 점, ②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양부일구는 약 10점으로 적은 편이며, 기 보물로 지정된 양부일구가 받침대에 수평홈이 있는 점과 달리 이번에 조사된 양부일구는 수평홈이 없이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 새로운 양식의 희소한 유물에 해당된다는 점, ③태양의 그림자로 시간 뿐 만 아니라 날짜(절기)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독창성과 함께 조선시대 천문과학기술의 발전과 애민정신을 엿 볼 수 있는 대표적 과학문화재라는 점에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 양부일구(仰釜日晷)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양부일구(仰釜日晷)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11.5cm, 지름 24.2cm, 무게: 4.28kg
- 재 질 : 황동 및 구리, 아연, 납 등 합금
- 형 식 : 네 개의 다리가 달린 가마솥 모양의 오목한 해시계
- 조성연대 : 1713년 이후 추정
- 사 유

‘양부일구(仰釜日晷)’는 양부일영(仰釜日影)으로도 쓰며, 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 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의미이다. 1434년(세종 16) 장영실(蔣英實), 이천(李蕝), 이순지(李純之) 등이 왕명에 따라 처음 만들었으며, 그 해 10월 종묘 앞과 혜정교(惠政橋)에 각 1대씩 설치하였다. 그 후 조선 말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궁궐과 관공서에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양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양부일구의 경우, 북쪽방향(子)에 은상감으로 새긴 ‘북극고 37도 39분 15초(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라고 새긴 명문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 이후 처음 사용된 사실이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를 통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역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국내 현존하는 양부일구는 현재까지 약 10점이 알려져 있으며, 비교조사를 통해 3개 소장처(국립고궁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에 보관된 3점에 대해 보물 지정 예고를 하게 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양부일구는 재질, 규격, 형태, 제작기법, 기능 등이 거의 유사해 동일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양부일구 1점은 일제강점기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재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양부일구와 형태가 거의 유사하며 가마솥 모양의 반구형 해시계로 시반, 지평면, 영침,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고궁박물관 소장본은 명문을 시계방향인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새긴데 반해 경주박물관 소장본은 시계 반대방향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명문을 새긴 점이 서로 다르다.

양부일구 시반에는 남북[午子] 방향으로 북극으로 향한 영침(影針)이 달려 있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세로 눈금인 시각선이 15분 간격으로, 계절을 알려주는 24절기의 가로 눈금으로 13개의 절기선이 은상감으로 새겨져 있다. 받침대는 네 개의 다리와 열십자[十]의 다리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개의 다리에는 각기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새겼으며 용 좌우에 구름 문양을 표현하였다. 열십자[十]의 다리받침 끝부분에는 거북이 머리를 새겼는데, 다리받침 형태가 고궁박물관 소장 양부일구와 달리 단을 두지 않고 직선 형태인 점이 다르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해 3개 소장처 양부일구는 ①제작기법에서 시반의 시각선과 절기선, 지평면의 절기글자와 24방향 글자에 표현된 은상감 기법과 영침, 받침대(다리와 다리받침)에 적용된 리벳과 뿔기법, 그리고 받침대에 시문된 용무늬, 구름장식, 거북머리 장식 등에서 뛰어난 조형미를 보이고 있어 숙련된 기술자가 제작한 최상급의 양부일구로 판단된다. ②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양부일구는 약 10점으로 적은 편이며, 기 보물로 지정된 양부일구가 받침대에 수평홈이 있는 점과 달리 이번에 조사된 양부일구는 수평홈이 없이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 새로운 양식의 희소한 유물에 해당된다는 점, ③태양의 그림자로 시간뿐 만 아니라 날짜(절기)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독창성과 함께 조선시대 천문과학기술의 발전상과 애민정신을 엿 볼 수 있는 대표적 과학문화재라는 점에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 양부일구(仰釜日晷)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양부일구(仰釜日晷)
- 소유자(관리자) :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12.0cm, 지름 24.3cm, 무게: 4.74kg
- 재 질 : 황동 및 구리, 아연, 납 등 합금
- 형 식 : 네 개의 다리가 달린 가마솥 모양의 오목한 해시계
- 조성연대 : 1713년 이후 추정
- 사 유

‘양부일구(仰釜日晷)’는 양부일영(仰釜日影)으로도 쓰며, 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 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의미이다. 1434년(세종 16) 장영실(蔣英實), 이천(李蕝), 이순지(李純之) 등이 왕명에 따라 처음 만들었으며, 그 해 10월 종묘 앞과 혜정교(惠政橋)에 각 1대씩 설치하였다. 그 후 조선 말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궁궐과 관공서에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양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양부일구의 경우, 북쪽방향(子)에 은상감으로 새긴 ‘북극고 37도 39분 15초(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라고 새긴 명문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 이후 처음 사용된 사실이 『국조역상고

『(國朝曆象考)』를 통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역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국내 현존하는 양부일구는 약 10점이 알려져 있으며, 비교조사를 통해 3개 소장처(국립고궁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에 보관된 3점에 대해 보물 지정 예고를 하게 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양부일구는 재질, 규격, 형태, 제작기법, 기능 등이 거의 유사해 동일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양부일구 1점은 1970년에 박물관에서 구입한 문화재이다.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양부일구와 형태가 거의 유사하며 가마솥 모양의 반구형 해시계로 시반, 지평면, 영침,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고궁박물관 소장본은 명문을 시계방향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새긴데 반해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본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처럼 시계 반대방향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명문을 새긴 점이 서로 다르다.

양부일구 시반에는 남북[午子] 방향으로 북극으로 향한 영침(影針)이 달려 있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세로 눈금인 시각선이 15분 간격으로, 계절을 알려주는 24절기의 가로 눈금으로 13개의 절기선이 은상감으로 새겨져 있다. 받침대는 네 개의 다리와 열십자[十]의 다리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개의 다리에는 각기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새겼으며 용 좌우에 구름 문양을 표현하였다. 열십자[十]의 다리받침 끝부분에는 거북이 머리를 새겼으며 정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있다. 다리받침 형태는 고궁박물관 소장 양부일구처럼 단을 둔 형태이며, 직선 형태인 경주박물관 소장 양부일구와는 다르게 표현되었다.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해 3개 소장처 양부일구는 ①제작기법에서 시반의 시각선과 절기선, 지평면의 절기글자와 24방향 글자에 표현된 은상감 기법과 영침, 받침대(다리와 다리받침)에 적용된 리벳과 땀기법, 그리고 받침대에 시문된 용무늬, 구름장식, 거북머리 장식 등에서 뛰어난 조형미를 보이고 있어 숙련된 기술자가 제작한 최상급의 양부일구로 판단된다는 점, ②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양부일구는 약 10점으로 적은 편이며, 기 보물로 지정된 양부일구가 받침대에 수평홈이 있는 점과 달리 이번에 조사된 양부일구는 수평홈이 없이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 새로운 양식의 희소한 유물에 해당된다는 점, ③태양의 그림자로 시간 뿐 만 아니라 날짜(절기)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독창성과 함께 조선시대 천문과학 기술의 발전상과 애민정신을 엿 볼 수 있는 대표적 과학문화재라는 점에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 자치통감 권266~270(資治通鑑 卷二百六十六~二百七十)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자치통감 권266~270(資治通鑑 卷二百六十六~二百七十)
- 소유자(관리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세종대왕기념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관
- 수 량 : 5권 1책
- 규 격 : 38.6×24.8cm(반곽 27.8×19.9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36년(세종 18)
- 사 유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정치와 군사상의 업적을 위주로 서술한 서적이었으므로, 국왕이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해 교훈을 삼기에 중요한 자료였다.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에서도 '자치통감'을 중요시 해 여러 차례 간행한 바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자치통감 권266~270'은 1434년(세종 16) 편찬에 착수하여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총294권 가운데 권266~270의 1책(5권)에 해당하는 서책이다.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금속 활자본으로서, 위낙 거질(巨帙)이라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지정 예고 대상 자치통감은 권266~270에 해당하는 1책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권이 없는 유일본이다. 이미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인쇄 및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해 서지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통감 권266~270'은 기 지정된 자료에는 없는 내용으로, 초주갑인자 판본을 보완해 주며, 전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희귀본으로서 정치학, 행정학 및 서지학 등의 역사적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慶州 芬皇寺 金銅藥師如來立像)

- 지정현황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19호(1996.5.14.지정)
- 명 칭 :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慶州 芬皇寺 金銅藥師如來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분황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분황로 94-11, 분황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상높이 345cm, 어깨 너비 95cm , 약합지름 17.5cm, 높이 7.3
- 재 질 : 동(銅)
- 조성연대 : 1609년(광해군 1) 조성, 1775년(영조 51) 개금보수
- 형 식 : 독존, 입상
- 사 유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조선 후기의 유일하고 규모가 가장 큰 금동불 입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1998년 분황사 보광전 해체 수리과정 중 중도리 바닥에서 1616년 「분황사상량기(芬皇寺上樑記)」 및 중도리에서 1680년 「부동명활성하분황사중창문(府東明活城下分皇寺重創文)」 목서(墨書)가 확인되어 이 약사여래입상이 1609년 5,360근의 동을 모아 제작한 대형 불상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성 이후에도 김수홍(金壽弘, 1626~1690)의 『퇴우당집(退憂堂集)』, 임필대(任必大, 1709~1773)의 『유동도록(遊東都錄)』 등 조선 후기 문인들의 문집에 언급되어 있어 전승 경위 또한 명확하다.

분황사는 신라시대부터 자장율사(慈藏律師), 원효대사(元曉大師) 등 여러 고승들의 수행처이자 중요한 가람터로 인정되어 온 한국의 대표적 사찰이다. 원래 이곳에 봉안되었던 금동약

사불은 정유재란으로 인해 소실되었으나,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약사도량으로서 분황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란 후 얼마 되지 않아 지금처럼 장대한 규모로 복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상이 주목되는 이유는 17세기 초반의 동조(銅造) 불상이라는 점, 규모가 354cm이르는 현존 최대 금동약사불이라는 점, 앞 시기 규범에 따라 입상으로 조성된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대형 불상이 대부분 소조(塑造, 진흙)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금동불상은 매우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규모가 커 우람한 형태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달리 둥글고 통통한 얼굴에 어깨가 왜소해 전반적으로 동안(童顔)의 형태미를 보여준다. 특히 아이처럼 앳돼 보이는 이목구비는 16세기 불상 양식이, 가슴과 복부가 길쭉한 비례감과 세부 주름 등 신체 표현은 17세기 양식이 엮보인다는 점에서 신·구 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616년과 1680년에 작성된 두 건의 상량문을 통해 1609년에 동(銅)으로 불상을 조성했다는 조성 경위와 불상의 존명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높다.

【지정 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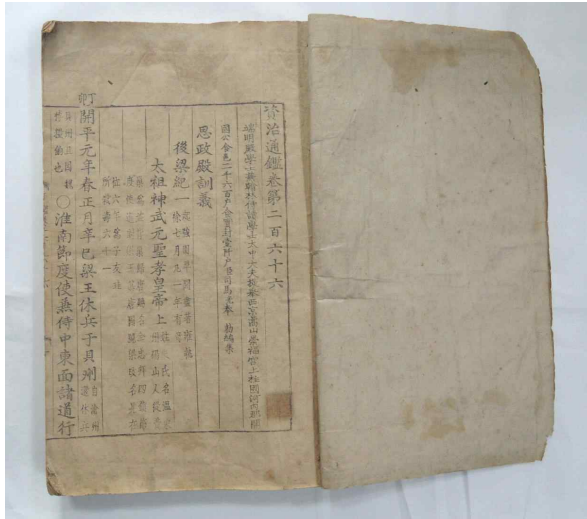
<양부일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양부일구>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양부일구>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자치통감 권266~270>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